

## 7. 전립선암의 뇨 세포학적 소견 2예 보고 Prostatic Adenocarcinoma in Urine Cytology -2 cases repor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인애, 함의근

뇨세포 검사로 전립선암 세포를 관찰하는것은, 전립선이 요로와 직접 통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주 드문 일이다. 연자들은 뇨 세포 검사상 종양세포가 관찰되고 조직검사로 확진된 전립선암 2예를 검험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은 67세 남자로 4개월부터 시작된 빈뇨, 혈뇨, 및 야간뇨를 주소로 입원 하였다. CT 검사상 전립선과 방광 후벽, 정액 소낭 및 직장 주변 지방 조직까지 침윤한 전립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증례 2도 67세의 남자로 혈뇨를 주소로 입원하였는데 과거력상 4개월전에 혈뇨로 내원하여 경뇨도 생검으로 전립선의 결절성 증식으로 진단 받았었다. 조직검사상 역시 방광까지 침윤한 전립선 암이었다. 뇨세포 검사상 증례 1에서는 소수의 크기가 작은 둥근 세포들이 단독으로 혹은 2~3개씩 모여서 관찰되었는데 세포질은 거의 없었고 핵은 과염색성이었고 커다란 핵소체를 갖고 있었으며 간혹 세포질 내에서 분비공포가 관찰되어졌다. 증례 2의 뇨세포 검사에서는 다수의 둥근 세포송이들과 함께 역시 단독으로 흩어져서 관찰 되는 크기가 작은 둥근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세포송이들의 변연은 비교적 평활하였고 이들 역시 작은 양의 세포질을 갖고 있었다. 세포학적으로 이행성 상피 세포암과 감별하여야 하나 세포송이들이 유두상이 아니고, 세포들이 단독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분화가 나쁜 이행성 상피세포암 세포와는 달리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아주 적고 세포의 크기가 작은 점으로 구별이 가능하였다.

## 8. 간의 전이성 암종 22예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색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tastatic Tumors of the Liver -Analysis of 22 Cases-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명나혜, 고재수, 하창원, 조경자, 장자준

간은 전이성 암종이 가장 잘 침범하는 장기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발성 간세포암이 많은 지역에서는 간세포암이 중등도 이하의 분화를 보이는 경우에 늘 전이성 암종과의 감별이 문제가 된다. 간세포흡인 세포학은 정확한 진단 및 감별에 매우 유용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1년 상반기까지 간세침흡인술을 통해 전이성암으로 의심된 100예중 원발 병소가 확인된 22예의 각종 전이성 암을 대상으로 간암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 세포학적 변수와 각 종양의 특징적인 세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전이성 선암 9예, 편평 세포암 7예, 소세포암 1예, 연골 육종 1예, 유암 1예, 악성 흑색종 1예, 선양 낭성 상피암 1예, 신세포암 1예를 포함하는 22예를 검색한 결과, 59% (13예)에서 괴사성 배경이 다양한 염

증 및 출혈 소견을 동반하며 관찰되었고, 이는 종양 유형과 무관하였다. 종양 세포와 섞여 나오는 양성 간세포 및 담도상피 세포의 빈도를 살펴 보았을 때, 간세포는 선암의 88% (8예), 편평 세포암의 14% (1예), 신세포암 1예에서 관찰되어 전체적인 빈도는 높으나 종양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담도 상피세포는 보다 드물게 출현하였다. 종양내 결합조직형성을 시사하는 양성 기질 성분이 72% (16예)에서 관찰되었다. 간세포암의 특징의 하나인 종양 세포군 내의 혈관 내피 세포는 신세포암에서만 관찰되었고, 비정형성 간세포성 나핵은 모든 예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소세포암, 연골 육종, 유암, 악성 흑색종, 선양 낭성 상피암, 신세포암 등은 원발성 종양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진단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분화가 나쁜 경우의 선암과 편평 세포암은 간암과의 세포학적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이성 선암의 경우 대부분이 괴사성 배경하에 대장, 췌장, 총담수관, 유방 등 원발 병소에 따른 차이 없이 간세포암과는 다르게 길쭉한 핵과 세포질을 가지며 기저막위에 나란히 줄을 선 양상을 보임이 공통된 소견이었다. 편평 세포암은 선암보다 괴사성 배경의 빈도가 적고, 대개 결합조직형성에 의한 양성 기질 성분이 각질화된 세포들과 함께 종양 세포 집단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간종양의 흡인 세포학에서 분화가 나쁜 선암과 편평 세포암에서 전이된 경우가 간세포암과의 감별이 힘들며 이때 전이성 종양을 좀더 생각하게 하는 소견들은 양성 간세포의 혼합, 괴사성 배경, 양성 기질 성분의 존재, 내피 세포나 간세포성 비정형성 나핵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이었고, 그 외의 전이성 종양들은 원발성 종양의 특징들을 비교적 잘 보여줌을 알수 있었다.

## 9. 간의 전이성 암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108예에 대한 연구-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Tumors Metastatic to the Liver

- A study on 108 cases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영년, 이광길, 박찬일

간의 문맥이나 간동맥을 통하여, 또는 인접장기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의 직접적인 침습을 통하여 전이가 흔히 일어나는 장기이다. 최근 영상진단법의 진단으로 작은 크기의 병소까지도 발견 가능하게 되었으나, 약 10%의 전이성 암병변의 경우 고립성 결절로 발견되며, 양성병변, 원발성 간암 및 전이성 암병변 사이에 방사선 소견상의 유사성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현미경적 진단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이성 암병변의 약 10~20%에서는 원발병소를 모르는 경우이며, 현미경적 진단을 통한 원발병소의 추정이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중요하다. 세침흡인술은 굵은 침을 이용한 생검후에 오는 합병증이 거의 없는 반면 간편용이하며 진단도 빠른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방법이나, 간의 전이성 병변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연자들은 1983년 1월부터 1991년 5월까지 8년 5개월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된 간세침흡인 생검중 전이성 암으로 진단된 108예에 대한 세침흡인 소견을 살펴보았다.

전이성 암의 남녀비는 1.2:1 이고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임상 또는 병리학적 검사상 밝혀진 원발병소는 위장관 계통이 가장 많았으며, 위 (23예), 췌장 (19예), 담낭 (15예), 결장 (15예), 폐대부 주위 암종 (per-